

■ 상하이 F-1 대회 가보니



상하이 F1대회는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래 건설된 경주장에서 레이스들이 힘찬 경주를 벌이고 있다.

정부 적극 지원, 3년만에 대성공

◇정부의 적극 지원=상하이 F1대회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시작됐다. 즉, 중국이 2008년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상하이에서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리는 F1대회를 열어 국제도시의 명성을 얻겠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고위 관료들로 F1 대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주도로 3억달러(3천억원)를 들여 초현대식 경주장을 건설했다.

또 국영회사인 상하이 '지안' 투자개발회사, 상하이 '유스'(Jiu She)사, 상하이 'Asset'투자사 등 3개사가 경주장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운영 비용을 나눠내고 있어 대회진행을 돕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F1 경주장이 들어설 영암지역 간척지를 겨우 우선사용토록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치권의 대립으로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과 크게 대조된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상하이 F1대회는 지난 2004년 개막 대회에 15만 명이 몰린 이후 2005년 12만명, 2006년 24만명, 2007년 15만명이 관전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초청 관중이 많아 다른 해와 차이가 컸다.

◇자동차산업과 연계=상하이 F1경주장 주변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 공장이 들어서고 자동차 박물관, 자동차 전시장도 들어서 있어 완벽한 '자동차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전 세계 스피드 스포츠 팬을 열광시키고 있는 상하이 F1대회가 지난 2004년 시작된 후 성공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7일 상하이시 지이딩(嘉定)구 F1경주장에서 열린 2007 상하이 F1그랑프리 결승전에는 모두 15만여명의 관중이 스탠드를 가득 메워 뜨거운 열기를 발산했다. 상하이 F1대회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동차산업과의 연계, 다양한 경주장 활용 등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평이다. 따라서 오는 2010년 첫 F1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남으로서는 가까운 상하이 F1대회의 성공요인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벽한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수요 폭발 연중 클럽대항 등 경주장 활용 잠재관객 형성

경주장과 5km남짓 떨어져 있는 자동차박물관에서는 세계 자동차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롤스로이스, 포드, 푸조 등 최고급 자동차의 실물이 연대별로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또 자동차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전시장에서는 신차 발표회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가 연중 끊이지 않는다. 상하이 F1경주장과 폴크스바겐 자동차공장, 박물관 및 전시장을 아우르는 지역에는 쾌적한 주거지와 상업시설, 골프장 등 체육 휴양시설을 갖춘 인구 50만명의 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상하이시의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영암에 F1경주장을 건설한 후 주변

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 프로젝트), 자동차 관련 산업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양한 활용 방안=윗 상(上)자 형상으로 건설된 상하이 F1경주장은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서도 한 몫 하고 있다. 또 F1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다양한 용량의 자동차 레이스가 벌어지고, 개조하지 않은 일반자동차 경주와 모터사이클 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자동차 동호인들의 클럽대항 경기도 연중 열려 잠재적인 관객형성에 도움을 준다. 메인 경주장에서는 때때로 대중 스타들이 벌이는 호화스러운 공연도 곁들여져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상하이=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제18대 총선 D-6개월, 광주·전남 전망

범여권 분열·반목...대규모 지각 변동 예고

대통령 선거에 가려져있지만 내년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도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18대 총선은 연말 대선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전남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뜻을 입고 당선된 현역의원들은 18대 총선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현역의원들을 밀어내고 금빛지를 달아주었으나 별다른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적 구호만 내세웠던 일부 초선의원들과 범여권의 위기 국면에서 별다른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재선급 이상 의원들은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출신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현 민주당 의원들도 '물갈이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18대 총선 구도=현 상황으로는 18대 총선 구도는 복수의 범여권 정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이 혼재하는 복잡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범여권 제 세력의 정치적 기득권 놓기가 쉽지 않은데다 민주당 분당 이후 쪼그라들고 있는 분열과 반목은 '원샷 대통합 신당'의 출범에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총선 입지자 행보=18대 총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총선 입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의 분열로 정당 선택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는데다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물갈이 예고=18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리더십 부재로 '물갈이' 쓰나미 대선후 정치권 이합집산 혼전 일부 선거운조 조정 '관전 포인트'

민주당 분당으로 초래된 범여권의 분열과 반목은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실패가 현실화된다면 18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뜻을 입고 당선된 현역의원들은 18대 총선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현역의원들을 밀어내고 금빛지를 달아주었으나 별다른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이다.

범여권이 연말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한다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모든 세력권이 흡수되면서 일당 체제가 형성될 수 있지만 정권 창출에 실패한다면 범여권의 분열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이 대선에서 실패하면 18대 총선에서의 민주·개혁진영은 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직후 출범한 새로운 신당 등으로 분열되면서 혼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후 '민주·개혁세력 위기론'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통합 없이는 18대 총선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범여권 제 세력이 일거에 통합되는 '원샷 대통합 신당'이 출범할 것이라

여기에 현재 그 어느 정당도 광주·전남 정치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총선 입지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참여정부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중용됐던 여권 인사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된다. 이는 총선구도는 훨씬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지역의 선거구 조정 문제는 18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강진·완도, 영광·함평 등의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면서 경우에 따라 무더기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정계특위의 선거구 조정은 내년 2월 국회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남지역 총선 입지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듯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전남보다는 선거구가 거의 확정된 광주지역에 총선 입지자들의 행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 "105층 류경호텔 공사재개" DJ "北, 통 큰짓 했구만"

■盧대통령-DJ 내외 오찬 회동 "정상회담 많은 성과" 한목소리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해 11월4일 '김대중 도서관' 전시실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동교동 자택을 직접 찾아 오찬을 함께 한 이후 11개월여만에다.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화제로 오르자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서

해경화협력특별지대는 절묘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고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회고하면서 "초기에 자주, 민족공조, 외세배격을 강조해서 난감했다. 그러나 나중에 잘 풀릴 수 있었다"고 전하자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나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특구 문제에 대해 김 국방위원장이 처음엔 부정적이었"면서 "그래서 '남쪽에서도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10년씩 걸린다. 여러 개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많이 이해하고 수긍했고, 그 뒤 경험, 특구 문제가 잘 풀려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박지원 전 비서실장도 참석했다. 오찬 직전 김 전 대통령이 개성~평양 고속도로 상황을 묻자 노 대통령은 "길이 상당히 관찮은 편이었다. 다만 포장 상태가, 예를 들면 포장 공사할 때 마무리 공사를 조금 안 한 것 같은 그런 걸이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류경호텔이라고, 그 공사를 재개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건축 기술의 수준이 상당한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이 류경호텔의 추수를 묻은 뒤 노 대통령이 "105층"이라고 말하자 "통 큰 짓을 했구만"이라고 농담을 건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연합뉴스

친환경 생명농업! 미래 희망과 도전

제6회 태안민국 농업박람회

2007. 10. 24(수) ~ 29(월) 5일간

신라남도농업기술원 내(대안) 1부 2층

신라남도농업기술원

홍거리·해동거리·해동거리·삼거리가 있습니다

문의처: 태안민국농업박람회추진위원회 061-249-2165~7